

극단 **脈** 정기공연
마흔 두번째 공연

바다를 살리자

셋 바람 부는 날에

작/ 김경화
연출/ 이정남

'97.6.21(토) ▶ 22(일) 오후 4시, 7시
시민회관 소강당 (공연문의: 628-8885, 645-3759)

작가의 변



작 / 대표
김 경화



알래스카 연안 1600Km를 황폐화시킨 <엑스발데즈>호 유조선 침몰사건은 1989년 3월의 일이었다. 지금부터 7년 전의 일이다. 26만 배럴(4만2천드럼)의 기름이 쏟아져 1만마리의 수달이 몰살하고, 40만마리의 바다새가 죽었으며, 생태계 피해는 계산불능으로 보고됐다.

죽어버린 수달등 계산되는 생물의 피해액은 45억달러, 연안 주민들의 이주비용으로 10억달러, 방제비용 25억달러, 추가 정화비용 9억달러, 피해보상 소송중인 금액이 590억달러를 합치면 679억달러이다. 천문학적인 숫자 이다. 돈은 그렇다치더라도 파괴된 생태계가 정상으로 회복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현재 계산불가능이다.

2년전 우리나라 남해안에서는 7월에 <씨프린스호>, 9월에 <유일호>, 11월에 <호남 사파이어

호>가 기름을 쏟아내어 양식장이 밀집되어 있는 남해안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었다. 여름에는 적조현상까지 덮쳐 어민들의 목을 졸랐다. 파산한 집도 여럿 생겼고 빚진돈을 갚지못해 다른곳으로 옮겨 살아야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우리는 지금 낙동강을 살리자는 구호를 외치며 범시민 운동으로 확산시키고 있다.대구에서는 위천공단조성계획을 건설교통부에 접수시켰다고 한다. 자연파괴의 주범은 누구인가? 인간성 파괴의 주역들은 과연 누구일까? 과학앞에 무릎꿇고 신음하는 자연. 그 웅대한 자연을 운용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셋바람 부는 날에>는 이러한 의문으로 시작되어 꾸며진 작품이다.

한결같은 결론은 '사람들이 조심하고 경계하지 않으면 종말은 비극'이라는 사실이다. 작품에 참여한 많은 분들께 감사를 드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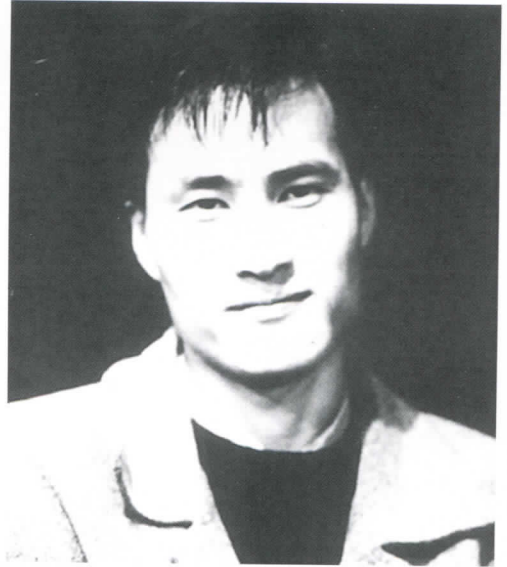
작품줄거리

평화롭고 아름다운 남해의 외딴섬 수리도, 축양장을 개장하는 축하잔치가 열리고, 할매는 손녀딸 향아를 교주의 양녀로 보내기로 결정을 한다. 어느덧 3년의 세월이 흐르고, 날로 번창하던 수리섬에 재앙이 덮치기 시작한다. 남해안 일대는 물론, 섬 주위에 점차 적조현상이 확산되고, 적조현상으로 인해 전씨의 양식장은 망하게 된다. 황사장은

적조피해 보상금을 갈취해서 도망을 가고, 앞친데 덮친격으로 유조선이 침몰해 엄청난 기름띠가 섬을 뒤덮는다. 선착장에서 놀던 향아는 미끄러져 바다에 빠져 죽고...

아이는 우리들의 미래이다. 우리의 미래가 환경오염, 인간오염으로 인해 갈색늪 속의 삶이 된다면?

연출의 변



연출
이정남

현 대문명의 발달로 인해 대두되는 자연질서의 파괴, 즉, 오염으로 인한 환경파괴, 인간성 상실로 인한 비인간화의 문제, 인간들의 극단적인 개인 이기주의의 심각성, 남해안 일대와 부산 앞바다의 기름유출, 해마다 찾아오는 적조현상, 각종 공해물질의 유출, 인간들이 마구잡이로 내다버리는 각종 생활 오.폐수로 인해 파괴되어가는 자연 생태계는 우리 인간의 종말을 예견하고 있다.

사이비 종교의 종말론, 사이비 종교의 난립, 그 종교가 가지는 도덕성을 어떻게 볼 것인가?

여기에 등장하는 사이비 종교, 인간성 상실의 문제, 언론에 자주 거론되는 현대인들의 낙약함과 도덕성, 섬이라는 공간을 어떻게 무대화 시킬지, 오염된 바다를 어떻게 형상화시킬지 나름대로 고민하고 현장답사를 거쳐 작품을 올리면서도 관객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의문이다.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이 자연을 파괴하고, 자연을 거부하면서 자연의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파렴치한 행동들, '사회주의

동물'이라는 인간이 개인의 사리사욕만을 채우며 개인 이기주의에 빠져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병폐로 말미암아 우리의 산과 바다, 땅이 죽어가고 있다. 21세기의 물적자원들이 죽어가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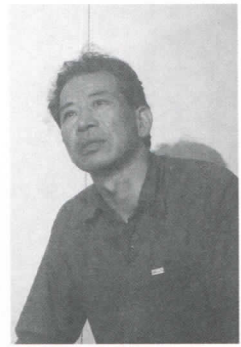
인간성 상실의 문제와 환경오염으로 인한 자연질서의 파괴를 다루고 있는 이 작품에서 현재를 살아가는 인간 삶의 기본입장을 정리하고 우리가 되돌아 보고 획득해야 할 인간성 회복과 자연의 조화로움 속에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을 - 수리섬이라는 가상의 섬을 통해 현대인들의 모습을, 현재 우리 삶의 모습들을 - 되돌아 보자.

'환경을 살리자'는 캠페인에 동참하여 나로부터 실천하고, 개개인이 각 가정에서 비인간화로 야기되는 인간성 상실의 문제들을 '다같이 더불어 사는 사회로'의 회복을 이 작품을 관극하신 모든 분들께 당부드리는 바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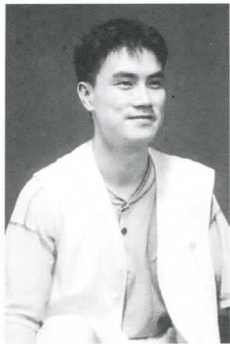
CAST



할 매/이현주



전사장/어주선



황사장/김동우



파주댁/손경하



배서기/김도형



구 복/권대희



향 아/김대옥



사교주/김만중



남해댁/송진아



통영댁/박은경



동네사람/김순규



동네사람/조영미



동네사람/이재성

STAFF



제 작/박종감



기 획/이우길



무대감독/신희석



조 명/유은경



분 장/손서운



음 향/심미란



진 행/이현욱